제68차 국제도서관협회연맹 글래스고 대회 참가 보고

박 경 아*

◈ 대회 개요

IFLA(국제도서관협회연맹) 제68차 대회가 영국 글래스고(Glasgow)시의 SECC(스코틀랜드 전시컨벤션 센타)에서 8월 16일부터 24일까지 개최되었다. 대회장은 글래스고시(市) 외곽을 흐르고 있는 클라드(Clyde)강 옆 조금은 한적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 호텔 등이 밀집해 있는 시내 중심부에서는 접근하기가 약간 불편했으나 대회장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아서 온종일 대회 참가활동을 하기에는 큰 지장이 없었다. 이번 대회에는 122개국 4,700여명이 참가하였는데 이는 2001년 보스톤 대회(총 5,573명) 다음으로 역대 가장 많은 참가자 수를 기록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우리 협회 대표단 60여명(명단은 본지 2002년 7 · 8월호 41쪽 참조)을 포함 약 70여명이 참가하였으며, 북한에서도 영국 외무성의 초청으로 2명이 참가하였다.

IFLA대회의 주요 프로그램은 다수의 논문발표와 각 종 회의와 함께 개최국의 도서관 사정과 문화를 이해하는 기회를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대회 참가자들은 대회장에서 도보로 10여분 거리내에 위치한 미첼공공도서관과 글래스고대학도서관 등을 비롯하여, 만찬 및 문화행사 등이 개최되었던 글래스고 과학센터, 스코틀랜드국립박물관, 왕립로얄콘서트홀 등 다수의 도서관과 문화시설을 견학할 수 있었다.

대회의 대주제는 '삶을 위한 도서관 : 민주주의, 다양성, 정보의 전달(Libraries for life : Democracy, Diversity, Delivery)' 로 대회 기간 중에는 약 220여회의 각 종 모임(총회, 강연회, 부회, 분과회, 리셉션 등)이 있었다. 각 종 모임과 병행하여 30여개 이상의 글래스고시 · 에딘버러시 주변의 도서관견학, 150여개의 도서관관련 기업 · 영국국가도서관 · 영국도서관협회, 구미 지역의 도서관협회 등이 참여한 전시회 등도 개최되었다.

◈ 총회 의제

IFLA 대회에는 IFLA 소속 회원(단체,개인)들이 참가하는 총회가 열리는데 이번 대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8월 18일(일) 열린 총회 I 에서 논의된 첫 번째 의제는 IFLAnet과 코아(Core) 프로그램의 운영 변화에 관한 것이었다. IFLA는 종래의 4개 코아 프로그램에 추가하여 FAIFE(정보에의 접근과 표현의 자유위원회), CLM(저작권 등 법적문제위원회)이라고 하는 중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이들 코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기관이 변경되고 활동 자금이 고갈되어감에 따라 각 국의 국가도서관을 비롯 IFLA 기관 · 개인회원의 지원이 요청되고 있는 실정이다. 두 번째로는 FAIFE위원회가 제안한 '도서관, 정보서비스기관, 지적자유에 관한 글래스고 선언(The Glasgow Declaration on Libraries, Information Services and Intellectual Freedom)' 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성명 채택의 취지는 도서관 · 정보분야에서 지적자유에 관해 국제적 합의를 명확히 하고 이해와 협력을 구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해 발생한 미국 9.11테러 사태 이후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조치에(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률 제정 등) 대응한 도서관계의 능동적인 움직이라고 생각된다 (원문은 http://www.ifla.org/faife/policy/iflastat/gldeclar-e.html, 번역문은 본지 105~106

* 한국도서관협회 사무국 팀장

쪽 참조). 세 번째 안건으로는 국가회원의 연회비 인상 문제였으며, 8월 23일(금) 열린 총회 Ⅱ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접근에 있어 어떠한 제약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취지를 담은 FAIFE위원회가 제안한 '인터넷 성명(The IFLA Internet Manifesto)'이 채택되었다(원문은 http://www.ifla.org/III/misc/internetmanif.htm, 번역문은 본지 106~108쪽 참조).

◈ 우리 협회 대표단의 활동

60여명으로 구성된 우리 협회 대표단은 IFLA 회원국으로서의 활동과 참가일정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회 임직원팀, IFLA 2006 서울대회 개최국으로서의 준비활동을 맡은 "IFLA 2006 서울대회" 준비위원회팀, 그리고 전국 각 급 도서관에서 모인 일반 참가자팀 등 크게 세 팀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우선 신기남 회장을 비롯한 협회 임직원팀(이용남 부회장, 정동열 국제협력위원장, 이현주 총무부장, 박경아 팀장)은 IFLA 회원 자격으로 다양한 회의(총회 Ⅰ · Ⅱ, 각 국 도서관협회장 회의 등)에 참석하여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 한 편 IFLA 2006 서울대회 개최국 협회의 입장에서 대회 현장을 둘러보며 대회 운영 현황을 관찰하였다. "IFLA 2006 서울대회" 준비위원회(공동위원장 : 신기남 한국도서관협회장, 신현택 국립중앙도서관장)는 지난 1999년 방콕대회에서 한국대회가 결정된 이후 공식적인 조직위원회를 발족하기 이전까지 대회 준비를 추진하기 위해 한국도서관협회와 국립중앙도서관 인사 10여명으로 구성된 기구로 이번 대회에는 5명의 위원(김태승 기획위원회 위원, 신현택 국립중앙도서관장, 이숙현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조직과장, 정동열 국제교류위원장, 한상완 남북도서관협력위원장)이 참석하였다. 준비위원들은 IFLA본부측과 만나 대회로고(안) 제출 등 서울대회 준비상황을 설명하고 앞으로의 진행과정을 협의하였으며, 대회 개최국 관계자 회의에 참석하여 기 개최국의 선행 경험과 개최 예정국의 준비 상황 등을 조사하였다. 아울러 2002년 대회 운영 현장을 워킹그룹 분과별로 평가분석하고 각 종 자료 수집 및 관계자 면담의 시간을 가졌다. 도서관 현장 사서들로 구성된 일반 참가자팀은 8월 19일(월) 개회식부터 8월 21일(목) 에딘버러페스티벌 밀리터리타투 (Military Tattoo)관람까지 4일간 각 종 모임에 각자의 관심 분야에 따라 개별적으로 참여하였으며, 대회 참가 활동을 마친 후에는 영국 및 프랑스국가도서관 견학을 하고 귀국하였다.

(IFLA측과의 협의를 하고 있는 우리 협회 대표단)

◈ 향후 과제

1927년 유럽 15개국이 모여 발족된 국제도서관협회연맹은 올해로 75주년을 맞이하였으며 2002년 현재 153개국의 1,700관(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국제적인 전문직 단체로 발전하고 있다. 지난 1955년 한국도서관협회가 국가회원으로 IFLA에 가입한 이후 우리 한국과 IFLA와의 관계는 1976년 서울에서 "IFLA World Wide Seminar"를 개최한 것을 제외하고는 크게 두드러진 활동이 없었다. 이 번 글래스고 대회에도 약 70여명의 국내 도서관인들이 일반 참가자로 참여하였지만, 40여개의 각 종 분과 운영위원회 · 220여회의 각 종 발표회 · 150여개 업체가 참여한 전시회 등에서 우리 한국인의 참여를 찾기 어려운 점은 무척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2006년 서울대회가 진정 우리나라 도서관인들의 자질 향상과 도서관 및 정보관리의 발전에 기여하고 우리나라 우리문화에 대한 세계 도서관인들의 친화와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조직위원회와 현장 사서들이 일체가 되어 깔끔한 대회 진행을 준비하는 일과 더불어 우리 학계와 현장이 우리의 도서관문화를 전 세계 도서관무대에 등장시킬 수 있는 국제화 감각을 갖추는 일이 급선무가 아닐까하는 생각을 해본다.